광주일보 70년 발자취

1952년 4월20일
광주일보 전신 전남일보
2월11일자 발행
4월20일 법원 등기 완료

1954년 3월7일
3·1절기념
제1회 전일단축마라톤대회
(광주~화순간 왕복)

1956년 6월13일
제1회 호남예술제(3일간)

1960년 10월
첫 신춘문예 공모
소설·희곡·시·시조
1961년 1월 1일자 지면 발표

1962년 10월25일
광주시립도서관
장서수집운동 전개
(11월25일 마감)

1962년 12월10일
광주시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 이전

1963년 11월1일
취재전용 비행기 L16 도입
(무등산호로 명명)

1965년 8월5일
일본 동경지사 설치

1966년 3월20일
호남푸대접 시정투쟁 보도
제1회 추경안 관련

1966년 12월23일
본지 기자 월남전 특파(3개월)
지방지 최초, 전남출신 장병
활동상 취재

1967년 8월31일
60년대 가뭄 '곡창이 탄다'
보도, 가뭄 피해 도민 돕기
성금모금 운동 전개

1968년 12월4일
파월장병에
신문보내기 운동 전개

1969년 5월24일
무의촌에 의약품 보내기,
학교 앞 육교 세우기,
공동주차장 설치 및 교
통 안전 캠페인 전개

1969년 7월18일
최초 컬러신문 발행,
지방지 최초

1970년 4월25일
전일도서관 개관,
장서 5만권

1971년 4월24일
전일방송 개국

1972년 1월4일
일본 오사카 지사 개설

1975년 3월15일
'무등산에 나무를 심읍
시다' 캠페인 전개

1975년 12월10일
불우 재일동포 모국방
문돕기 운동 전개

1980년 5월21일
5·18 민중항쟁으로
본지 발행 중단(~6월 1일)

1980년 8월2일
김종태 광주일보 사장,
광주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
12억원 전남도에 기탁

1980년 11월 17일
전남일보·전남매일 통합 발표
12월1일자 광주일보로 창간

1980년 11월18일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따라,
전일방송 중방

1983년 4월20일
농촌에 책 보내기 운동 전개
(~5월31일)

1984년 9월20일
자매지 '월간 예향' 창간호
발행(10월호)

1987년 2월1일
광주일보 연중캠페인
'광주를 푸르게'
1백만그루 식수운동 전개

1988년 10월7일
무등산 정상 개방 캠페인
국방부, 1990년 4월
서석대·입석대 등 개방

1990년 1월1일
'5·18 9년, 광주항쟁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연재로
한국기자상 수상

1992년 10월
광주일보 40년사 간행 발간

1994년 5월
제1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최

1996년 2월
최첨단 컬러윤전기
도입

1996년 6월
인터넷 광주일보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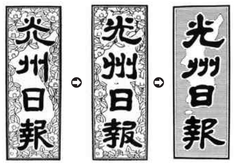
1997년 12월
광주 남구 송하동
127-3 제2공장 준공

2002년 2월
월간 예향 폐간
(통권 209권)

2013년 3월25일
월간 예향 복간
(4월호, 통권 210호)

2015년 5월28일
지령 2만호 발행

2018년 5월24일
사옥이전
(금남로 224)



나와 광주일보

광주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6·25전쟁 기간인 1952년 4월 20일 창간한 광주일보는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사시 아래 지난 70년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호남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종이신문을 받아본 독자는 물론 인터넷 광주일보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은 광주일보 기자들이 건져올린 뉴스를 보며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창간 70주년을 맞아 광주일보와 함께 하는 독자들을 만났다.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신문 통해 세상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이철갑(60)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광주일보는 지역민들이 가장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든든한 동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여년 동안 매일같이 광주일보를 읽으며 지역 정세를 살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조선대에 몸을 담은 그는 교수로서 빠르고 정확한 지역 소식을 알아야 했다고 한다.

"지역 여론을 모니터링하는 데 광주일보가 제격이었죠. 70년 전통뿐 아니라 발행부수, 구독자 등 규모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죠. 청와대에서 광주일보를 보고 광주 여론을 살핀다는 말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광주일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도 소개했다. 지난 2009년 조선대학교가 20여년에 걸친 임시이사 체제를 청산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광주일보가 앞장서서 정상화 목소리를 내주는 등 든든한 우군이 됐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창간 70주년을 맞이한 광주일보에 "지역 교육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광주일보가 앞으로도 조선대 공영화, 광주시의 AI(인공지능)학과 투자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현안들을 꾸준히 다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 섬마을 독자, 김계선씨

김계선(69)씨는 완도 청산도에 거주하는 광주일보 독자다. 68가구 123명이 살고 있는 청산면 모서마을에서 20여년간 광주일보를 매일같이 보며 지역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한다.

이른 새벽 바다로 조업을 나서는 김씨는 고된 일을 마치고 귀가한 뒤 TV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게 낙이었다. 섬에 살다보니 세상 소식에 어두워진다 싶어 TV뉴스를 챙겨봤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완도와 전남지역 이야기나 사건사고 등 화제성 뉴스는 방송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커졌다고. 김 씨가 광주일보 독자가 된 이유다.

그는 "완도사람들이, 전라도사람들이 어렵고 분통터질때 전라도 사람의 편에서, 전라도 사람들 시각에서 기사를 써주는 것 같아 시원할 때가 많았다"며 "광주일보는 농어민 소식을 많이 다루는 편인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도 지역 뉴스와 농어민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뤄달라"고 말했다.

◇이건호 전 화순 능주중 교장

이건호(61)씨는 1994년부터 광주일보를 구독해온 애독자다. 올해 초 화순 능주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기 전에는 학생들과 함께 신문을 봤고 이제는 화순읍 집에서 광주일보를 보며 내 고장 소식을 접한다.

이 전 교장이 신문을 구독하게 된 계기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교육자로서 평균인 이상의 교양을 갖춰야한다는 판단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문 구독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엔 중앙지, 지방지 여럿이 있었지만 내가 택한 것은 광주일보였다"며 "신문의 역사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신문이 광주일보 아닌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논조도 내용도 맘에 든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유튜브며 인터넷신문이며 뉴스가 홍수를 이루지만 10년 전만 해도 신문과 텔레비전이었다"며 "TV뉴스는 서울 소식 위주라서 내 고장 소식이 부족하지 않나. 광주일보는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서울과 지역 소식이 고루 담겨있어 한두 시간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에 서 있을 땐 광주일보를 비롯한 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려고 애썼다.

이 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보통신 기술은 발달하지 않았고 화순은 지금보다 훨씬 시골이었다. 선생인 나도, 학생들도 문화를 접할 기회나 정보가 늘 부족했다"며 "광주일보에서 맘에 든 기사를 오리고 복사해 수업시간에 들고 갔다. 학생들과 함께 소리 내 신문을 읽고 토론하고, 논리 전개의 오류를 찾는 시간을 통해 나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고생 독자 김현서 양

김현서(17) 양은 광주 동아여고에 다니는 여고생 독자다.

김 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엄마·아빠가 광주일보를 봤고, 김 양 역시 자연스럽게 광주일보 독자가 됐다.

신문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던 어린 시절엔 신문으로 종이접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문과 가까워졌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가 읽고 난 신문을 라면 받침대로 쓰거나 튀김 할 때 기름 튀지 말라고 거실에 펼쳐두거나, 선물 받은 그릇을 감쌀 때 쓰는 것을 보고 신문지 활용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고 감탄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

김 양이 독자로 거듭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처음엔 백화점 광고, 화장품 광고 등 광고 위주로 보다가 기사로 눈이 옮겨갔다고 한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는데 광주일보 신문에서 전후 사정이 담긴 기사를 본 뒤 신문 읽을 맛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현서 양은 최근 들어선 엄마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신문으로 논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일보 사설을 매일같이 오려 노트에 붙인 뒤, 붉펜으로 한 번씩 따라 쓰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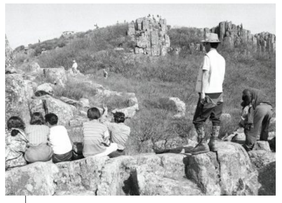
김 양은 "사설은 복잡한 현상이나 뉴스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요약해 근거를 담아 주장을 펼치는 글"이라며 "사설을 따라 쓰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뉴스인지 절로 알게 된다. 독해력과 논술 실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원탁 한국외대 명예교수·제11대 국회의원

박원탁(86·서울)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광주일보를 구독해온 애독자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명예교수는 매일 아침을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에 접속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박 명예교수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관심을 두고 읽는 것은 5·18민중항쟁 관련 기사다. 박 명예교수는 "사랑하는 광주 소식을 보고 읽고, 호남 사람들의 민심을 읽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며 "특히 5·18 관련 기사가 쟁쟁해 클릭할 맛이 난다. 책을 쓰려고 프린트해 둔 5·18기사만 수십 장"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일보 몇몇 기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980년 5월의 진실을 캐내려는 집념, 광주·전남지역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그들의 기사에서 느껴진다"며 "독자들이 뒤에 떡하니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명예교수는 1980년 5월 광주 참상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다. 계엄군의 만행으로 시민 희생이 컸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보안사 핵심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에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마음을 빚을 지고 매년 5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 넋을 기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는 국민의힘 인터뷰 등 공개석상에서 5·18 진실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